

마케도니아

◆ 마케도니아, 국제사회가 재건 지원에 나서

지난 3월 12일 마케도니아 원조회의는 마케도니아에 대해 5억 9,200만 유로(약 5.2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하였다. 이번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난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알바니아계 반군 소요로 파괴된 마케도니아의 각종 사회시설 복구를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EU 집행위원회를 비롯하여 40개국이 참여하였다. 본 원조회의는 지난해 마케도니아의 민족간 분규를 치른 후 EU가 주도하여 구성된 회의로서, 서부 발칸지역의 안정을 원하는 EU의 중재안을 마케도니아 정부가 수용한 데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케도니아 원조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3월에야 개최되었다. 또한, 마케도니아에 대한 원조회의는 지난 1991년 마케도니아 독립 이후 이번이 5번째이나, 약속한 원조자금이 제대로 집행된 경우는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한편, 발칸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EU는 1990년 대에도 각종 내전으로 얼룩진 발칸지역의 전후 복구를 위해 55억 유로(약 48억 달러)의 막대한 원조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약 4.5억 유로가 마케도니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말 EU 집행위원회가 확정된 마케도니아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에 따르면 EU는 2004년까지 EU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에 따라 1.1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마케도니아 정부는 특별히 IMF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케도니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 및 예산 등에 대해 감독을 받기로 IMF와 합의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 자금 지원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IMF와의 관계개선이 약속된 원조자금의 원활한 집행의 선결과제임을 마케도니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高 載 昊】